

## 파란 하늘 하얀 구름 ... 얼마 만이냐 '맑은 광주'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인 13일 오후 사직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주 도심 위로 파란 하늘과 구름이 펼쳐져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반경 3km 이내 2km<sup>2</sup>

나주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산업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일원을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2억원의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한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특구와 같은 대규모가 아닌 좁은 면적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 핵심기관과 기업을 모아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기존 특구 지정면적은 대덕특구 60km<sup>2</sup>, 광주특구 19km<sup>2</sup>에 달한 데 비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반경 3km 이내 2km<sup>2</sup> 정도이다.

특구 내 필수기관은 기존 특구의 경우 연구기관 40개-대학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1곳 이상만 갖추면 된다. 기술핵심기관과 지자체 협

약을 통해 특구 내 연구개발사업비 20%와 시설투자비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에너지밸리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으로는 한전과 한전공대를 꼽고 이 기관들 중심의 연구개발 단계와 기업유치단지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구로 지정받으면 100억원가량의 인프라 구축·연구개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8년간 50-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과 50-100%의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으며,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도 50%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다음달 나주시·한전과 강소특구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 신청은 한전공대 연구개발 배후단지인 연계한 해당 사업부지가 확정된 후인 오는 8월께 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정부 심의 및 지정 승인은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작지만 강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밸리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움직이는 민심 ... 빨라지는 '총선 시계'

오는 2020년 4월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땃발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조직 재 정비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세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내년 총선 선풍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총선의 전초전 격인 4·3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여야 각 정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계개편, 세대교체 바람 등으로 지역 정치권의 변화 폭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총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3일 광주·전남지역 정세가 따르면 이달 들어 민주당이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 지역 구 쟁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지역 조직을 손보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의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자유한국당도 자존심 회복을 위해 중량급 있는 총선 후보군 물색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중앙당 관계자들을 광주·전남으로 보내 각 지역위원회별로 동향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1년 앞 ... 광주·전남 정가 벌써 '술렁'

선거제 개혁·정계개편·세대교체 예고 지각변동 가능성 민주당, 중앙당서 호남 민심 살피기 ... 총선 대비 체제로 바른미래·평화당, 의원들 지역구 돌며 조직 단속에 나서 한국당, 중앙당 차원에서 중량급 있는 인사 출마 추진도

살폈다.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을 돌며 후보군 인물 평가와 각 지역구 특성을 파악하는 등 사실상 내년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관계자의 지역 방문과 여론 청취는 흔한 일이지만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진행된 이번 민주당의 광주·전남 방문은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우세지역 단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당대회 효과 등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한국당의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지역 선전이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호남지역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서둘러 총선 준비에 나섰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 지역에서의 압승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광주를 찾아 지역 여론을 살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과 청와대 사이의 조율과 가교 역할을 하는 강 정무수석의 지역 방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을 찾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천타천 후보군에 오른 민주당 인사에 대한 평판과 정치력, 지지기반 등을 면밀히 조사했고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들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 지역위원

장들의 경쟁력 여부를 가능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잠성성, 당선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매년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으로 전국 선거판세의 흐름을 주도해 온 지역인만큼 당의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고전했던 지역으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가 많아 신중하게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가 주요 정치 기반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직 단속에 나섰다. 6·13 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위원장들이 자리를 내려놓은 바른미래당은 최근 광주시장 조직 재건을 마쳤다. 또 평화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최근 주말마다 지역구를 돌며 등 중앙당 일정보다는 지역구 쟁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해 체면을 구겼던 자유한국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중량급 있는 인사의 출마를 추진하며 전국 정당으로의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동시조합장선거 광주·전남 203명 선출

투표율 광주 78.3%·전남 81.3%

'제 2회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평균 79.8% 투표율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광주·전남에서 203명의 조합장을 선출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광주가 78.3%, 전남 81.3%를 기록했다.

각 조합별로는 광주에서는 ▲농협 89.5% ▲수협 89.4% ▲산림조합 28.9%, 그리고 전남에선 ▲농협 86.7% ▲수협 78.6% ▲산림조합 65.5% 등의 투표율을 보였다.

광주 산림조합의 경우 불과 28.9%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투표를 다른 지역에서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 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이날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광주 2곳과 전남 31곳을 제외하고 170개 조합의 개표를 진행한 결과 서광주농협은 문

병우 현 조합장, 대촌농협도 전봉식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전남에서도 목포농협은 박정수 현 조합장, 강진농협 역시 정옥태 현 조합장이 선출됐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했으며 10건은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선관위는 검찰 고발 21건, 수사 의뢰·이첩 7건, 경고 46건 등 모두 76건을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남평동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1톤),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sub>2</sub>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Mercedes-Benz